

aT, 광폭 세일즈로 먹구름 드리워진 'K푸드' 살리기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일본·미국·브라질 등 해외 홍보 나서 브라질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한식 세계화 힘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 수출 1000억 달러를 위해 해외에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김춘진 aT 사장이 직접 '세일즈 맨'을 자처하고 나서 K-푸드를 알리는 등 전방위로 우리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aT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지난 7일 일본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등 해외 현장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추진단은 최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식품 주요 바이어인 (사)제일한국농식품연합회 및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와 만나 일본 내 우리 농수산물 판매 동향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대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동경식품박람회 2023(FOODEX JAPAN 2023)'을 찾아 한국관을 살펴보고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후 추진단은 미국으로 이동해 한인유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김치 등 수출 효과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추진단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미국 연방정부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3 내추럴-건강제품 전문박람회(NPEW)'를 찾아 한국 식품기업 29개사가 참가한 한국관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추진단은 미국에서 글로벌 최대 곡물기업이자 식품 전문업체인 카길(Cargill)과 만나 우리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남미에서는 시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지사를 설립했다. aT는 지난 10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지사를 개설하고 10일 개소식을 가졌다.

브라질은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을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파울루 지사를 발판으로 K-푸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브라질은 특히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왼쪽 다섯번째)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이 브라질 상파울루 지사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남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파울루시를 찾은 추진단은 지역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중남미한국식품연합회와 중남미지역 한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남미한국식품연합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11개국 한국 경제인들로 구성된 민간협회로, 중남미 각국에서 한국 농수산물 수입과 현지 유통은 물론 한식 세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중남미 K-푸드 시

장개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확대 협력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통한 한식 세계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실천 및 확산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추진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이동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1억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오른쪽)는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열흘 간의 모금 기간 동안 7265만 원을 모았고 공사 기부금을 더해 1억 원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도국 공무원 연수 성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국제 농업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월 한달 간 '2022/23년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이하 KAPEX) 대상국인 필리핀, 캄보디아, 파라과이 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KAPEX 온라인 연수는 국가별 KAPEX 사업 주제에 따른 정책 및 현장 강의 제공을 통해 연수생들의 농업정책 수립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한국형 ODA(개발도상국) 모델과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16회의 정책 강의와 국가별 KAPEX 사업주제에 부합하는 5회의 현장 탐방 형태 강의로 구성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전KDN, 메타버스로 모의 면접 코칭

'커리어톡 잡페어' 참가 취준생에 취업정보 제공

한전KDN(김장현 사장)은 지난 10일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인 '2023년 커리어톡잡페어'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커리어톡잡페어'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38개 대학과 공기업, 민간기업 참여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취준생들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이번 잡페어를 통해 공기업 최초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모의 역량면접 코칭'을 선보였다.

모의 역량면접 코칭은 면접 학원이나 면접 스테디 등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반영해 실제 면접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면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의 면접은 한전KDN이 자체 양성한 사내 채용 전문면접관과 전문기관(비른채용인증원)의 채용 전문면접관이 참여,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 방식의 심층 면접 질문으로 진행됐다. 모의 면접에는 취업준비생 약 40명이 참여했다.



메타버스 잡페어 운영 화면.

실제 모의 역량면접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심층 면접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단순 모의 면접에 그치지 않고 면접 체험 종료 후 참여자 개인의 강·약점과 면접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KDN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취업준비생들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제작 지원 공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동포언론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외동포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방송 한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에서 한국어 방송 콘텐츠를 편성·송출하며, 해당 국가의 방송 허가를 받은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가 대상이다.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외동포 사회 및

착형 한국어 콘텐츠를 방송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ca.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안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